

# 1918년 인플루엔자와 문학에 남겨진 감염의 흔적들

서희원\*

## 〈차 례〉

1. 망각된 재난, 1918년 인플루엔자
2. 낭만적 사랑과 환멸 그리고 팬데믹: 김동인 『마음이 열은 자여』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식민지 지식인의 일상: 1918년 윤치호의 『일기』
4. 3·1운동, 감옥, 그리고 인플루엔자: 전영택, 『운명』, 『생명의 봄』
5. 감염된 자아의 사회적 고백: 결론을 대신하며

## [국문초록]

1918년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3차례의 대유행이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진행되었던 2차 대유행 기간에 발생하였다. 신문의 보도를 제외하고 문학의 범위 내에서 그 기록을 살펴보자면, 2차 대유행의 참상은 김동인의 중편 『마음이 열은 자여』와 전영택의 『운명』에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윤치호의 일기에 일지와 같은 형태로 간략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919년 가을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의 경우 전영택의 중편 『생명의 봄』에 인물들의 관계와 갈등이 펼쳐지는 배경으로 세밀하게 담겨 있다. 이 외의 작품에서 20세기 사건 중 한국전쟁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이 글의 목적은 소설과 일기 등에 기록된 1918년 인플루엔자의 흔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질병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내면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감염이라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 때문에 작게는 인간관계, 크게는 사회 구조와 관계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윤치호의 일기는 그 글쓰기의 특성 상 하루분의 사건과 감상을 담아내고 있기에, 그리고 윤치호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1918년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사항을 읽을 수 있다. 김동인의 『마음이 열은 자여』는 소설적 글쓰기 외에도 일기, 편지, 유서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소설 문체에 대한 실험적 작

---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초빙교수

업을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영택의 『운명』 역시 편지와 같은 글쓰기 형식이 사용되었고, 『생명의 봄』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는 날짜와 시간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고,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기에 그것이 가진 시대적 증언의 효과는 다른 소설과는 달리 명징하다고 할 수 있다. 일기나 편지, 유서 등에, 그리고 그것의 결합 또는 종합인 소설에, 솔직하게 담긴 인물의 번민이 다른 사람과 명확히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자이를 고백한다면, 그 내용(또는 내면)과 시간의 기호는 다시 한 번 단단하게 결합하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사회의 경험을 고백한다.

[주제어] 1918년 인플루엔자, 팬데믹, 감염병, 감염, 김동인, 전영택, 윤치호, 3·1운동, 감옥, 고백, 증언

## 1. 망각된 재난, 1918년 인플루엔자

‘20세기 최대의 재난’,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바이러스’로 불리는 1918년의 인플루엔자<sup>1)</sup>는 그해 3월 처음 시작되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별칭을 만들 만큼 놀라운 전파력을 보였지만 이전의 치명적인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더 격정스럽게 여길 정도의 살상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하지만 1918년 여름이 지나고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을 때 이 질병을 둘러싼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전 세계는 ‘멸망’<sup>2)</sup>이란 단어가 과장처럼 느껴지지 않는 끔찍한 죽음의 공간이 되었다. 1919년 봄이 되자 이 감염병은 갑작스러운 등장처럼 정확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잠잠해졌으나 그해 가을부터 다시 시작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1920년 봄까지 지속된 제3차 대유행을 진행시켰고,

1) 1918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18년 3월 미국에서 처음 발생되었다고 당시의 의학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미국 해외파견군을 따라 유럽으로 퍼졌고, 이후 전쟁 물자와 군인들의 이동을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1918년 6월에 27만9,000명의 미군이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도착했다. 7월에는 30만 명 이상, 8월에는 28만6,000명이 유럽으로 건너갔다. 전쟁의 막바지 6개월 동안 총 150만 명의 미국인이 참전을 위해 유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에 따라 전염병도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활발하게 확산되었다.”(엘프리드 W. 크로스비,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김서형 역, 서해문집, 2010, 48쪽) 유럽 전선에 흩어진 병사들은 전투의 공포와 싸우는 동시에 전염병과도 사투를 벌였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전장에서 부상이나 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병사보다 질병으로 사망한 병사가 2퍼센트 더 많”(같은 책, 244쪽)고 그중 1918년 사망자의 상당수는 인플루엔자의 희생자이다.

2) 『남미연방의 각 도회는 독감으로 멸망될 지경』, 『매일신보』, 1918년 10월 26일.

이후 놀랍게도 흔적도 없이 증발하였다. 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는,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적게는 2,000만 명에서 많게는 당시 세계 인구의 5% 이상인 1억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sup>3)</sup> 인플루엔자가 맹위를 떨치던 1918년 가을에서 1919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만 독감이나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거의 54만9,000명”<sup>4)</sup>이었다. 식민지 조선도 인플루엔자를 피해가진 못했다. 1918년 한해에만 식민지조선에서 인플루엔자로 사망한 사람은 최소 140,518명<sup>5)</sup>에서 최대 203,107명<sup>6)</sup>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에서 간략하게 지적한 것처럼 1918년 인플루엔자는 3차례의 대유행이 있었고, 식민지 조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1918년 9월부터 1919년 1월까지 진행되었던 2차 대유행 기간에 발생하였다. 당대 신문의 보도를 제외하고 문학의 범위 내에서 그 기록을 살펴보자면, 2차 대유행의 참상은 김동인의 중편 「마음이 열린 자여」(『창조』 3~6호, 1919.12~1920.5)와 전영택의 「운명」(『창조』 3호, 1919.12)에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 외에는 윤치호의 일기에 일지와 같은 형태로 간략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1919년 가을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의 경우 전영택의 중편 「생명의 봄」(『창조』 5~7호, 1920.3~7)에 인물들의 관계와 갈등이 펼쳐지는 배경으로 세밀하게 담겨 있다. 필자의 과문함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외의 작품에서 20세기 사건 중 한국전쟁을 제외한다면 가장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이 재난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문학작품의 희소성, 그리고 지나간 시절의 질병에 대한 무관심, 민족과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과거

3)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독감』, 정병선 역, 돌베개, 2008, 36~37쪽.

4) 엘프리드 W. 크로스비,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김서형 역, 서해문집, 2010, 244쪽.

5) 「惡性輪感의 死亡者가 實로 十四萬明, 앓은 사람은 칠백육십만명, 호열자 흑사병 이상이다」, 『매일신보』, 1919년 1월 30일.

6) 이상원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98~2.42%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1918년 한 해는 이것이 약 3.09~3.42%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1918년 당시 식민지조선의 추정인구 16,697,017명에 대입해 계산하여 1918년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소 143,787명에서 최대 203,107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원,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예측 모델링 및 1918년 대유행에 대한 적용과 분석』, 충북대학교 의학박사논문, 2009, 17~21쪽.

의 역사를 통찰하는 일반적인 관성, 의학과 과학의 발전이 견인한 과거에 대한 오만한 시선으로 인해 오랜 기간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sup>7)</sup> 그것이 문학에 남긴 흔적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연구되지 않았다.<sup>8)</sup> 이 집단적 망각이나 무관심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sup>9)</sup>가 있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감염병이 당대에는 일상적이었던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의 사람들은 1899년과 1900년 사이 흑사병을 경험하였고, 콜레라는 1902년, 1907년, 1909년, 1919년, 1920년 수많은 조선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sup>10)</sup> 이 모든 감염병의 희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1918년의 인플루엔자로 죽음을 맞았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생노병사’라는 인생의 과정 중 하나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과학적, 의학적 미발전으로 인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인식되지 않는 인간의 죽음을, 1918년 인플루엔자의 문학적 흔적을, 소설과 일기 등에 기록된 문장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1918년의 인플루엔자는 그 증세나 감염력,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위험이 그 이전의 감염병과는 확연하게 달랐다. 이 질병은 처음엔 인후염, 두통, 고열 같은 기존의 감기나 독감과 다르지 않은 증세로 시작하지만, 증세가 위중해지면 병세는 폐렴에 의

- 
- 7) 1918년 인플루엔자는 그 놀라운 제앙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거의 학문적으로 주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 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김서형, 『전염병과 소수집단 배제의 담론 : 1918년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15권, 대구사학회, 2014. 김택중, 『1918년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인문논총』 제74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8) 1918년 인플루엔자를 다룬 당대 문학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서희원, 『1918년 인플루엔자의 대제양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이 있고, 이를 주변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이경훈, 『「창조」와 실연』 『한국문학의 연구』 6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등이 있다.
- 9) 엘프리드 W. 크로스비는 사회적 기록, 문학, 연구의 측면에서 진행된 이 거대한 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첫째, 20세기 초반까지 장티푸스, 황열병, 콜레라 등의 감염병은 일상적이었고, 그런 이유로 1918년 인플루엔자가 현재 판단하는 것처럼 인상적이지 않았다. 둘째, 아직 종결되지 않은 제1차 세계대전은 감염병의 사망자를 상대적으로 의미 없게 만들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병을 전쟁의 일부로 간주했다. 셋째, 감염병을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명 인사들의 죽음이 없었다. 엘프리드 W. 크로스비, 같은 책, 356~376쪽.
- 10)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239~250쪽, 405~409쪽. 백선례,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1호, 한국사학회, 2011, 209쪽.

한 합병증으로 진행된다. 환자의 신체는 심각해지는 병세에 따라 처음엔 붉게, 그리고 연보라 빛이 도는 푸른색으로 변하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신체의 끝부분부터 점점 어두워져 검게 변한다. 사람들은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고, 어지럼증이나 불면증, 청각과 후각 상실, 흐려진 시력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우울감과 불안,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섬망 증세도 흔했고,<sup>11)</sup> 이를 견디지 못한 자살도 다수 보고되었다.<sup>12)</sup>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검은 색의 변화가 시작되면 죽음은 며칠 혹은 몇 시간 안에 찾아온다.<sup>13)</sup> 유족은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크게 비탄하고, 죽음이 덮친 친지의 모습에서 더 큰 충격에 빠진다. 시신은 온 몸이 검게 변했고, 상체를 세운 사람처럼 흉부는 풍선 모양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빠르게 부패해 갔기 때문이다.<sup>14)</sup>

이러한 대규모의 죽음은, 그 경험은 결코 신문 기사의 객관성을 높여주는 보고형식의 문체나 숫자로 충분히 묘사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신문은 당대의 사실을 읽을 수 있는 기록의 보고이지만, 신문의 보도에서 개인은 서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회적 사건을 증거하는 일부분에 해당된다. 신문과 달리 문학적 기록에서 질병은 개인의 서사와 결합하여 그것이 삶에 남긴 흔적을 보다 자세히 독자에게 전달한다. 질병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내면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감염이라는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 때문에 작게는 인간관계, 크게는 사회 구조와 관계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문학이 배경으

11) 『독감이 산출한 비극-네 식구가 죽고 가장은 미쳤다』, 『매일신보』, 1918년 12월 12일.

12) “21세 된 자는 지나간 21일 오후 6시경에 그 상점 뒤에서 칼로써 목줄기와 배를 찔러 자살하였는데 원인은 요새 유행성 감기에 걸려 경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병발 되어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자살하였다더라.” 『독감환자가 신열에 썩어서』, 『매일신보』, 1918년 10월 25일.

13) “원래 유행성 독감은 여간해서는 죽는 일이 없고 전일의 기록을 조사하여 보아도 천명 중에 겨우 이흔 사람밖에 죽은 일이 없었다는데, 이번 독감은 성질이 극히 맹렬하여 삼사일 동안을 시름시름 앓다가도 별안간 병세가 변하여 폐경상한이 되면 하루 사이에 그만 죽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독감은 악성으로 변한다』, 『매일신보』, 1918년 10월 24일.

14) 1918년 인플루엔자의 증세와 환자의 상태, 시신의 모습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로라 스피니, 『죽음의 청기사』, 전병근 역, 도서출판 유유, 2021, 95~100쪽.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주목할 연구서를 출간한 지나 콜라타는 이렇게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얼굴은 푸르 죽죽한 암갈색으로 변하고 기침에 피가 나오기 시작한다. 발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마침내 종말이 가까워지면 미친 듯이 숨을 몰아쉬게 된다. 입에서 피 섞인 침이 부글부글 새어나온다. 그리고 죽는다. 사실상 익사하는 것이다. 허파에 붉은 액체가 가득 차게 되니까.” 지나 콜라타, 『독감』, 안정희 역, 사이언스북스, 2003, 26쪽.

로 하고 있는 사회의 축소된 형태는 인간과 질병, 죽음의 문제를 신문의 기사보다는 초점화하여 다루는 데 훨씬 유리하다.

이 논문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문학적 흔적에 대한 탐구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는 면에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한계도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멸망”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1918년 인플루엔자는 역사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지만, “망각”이라는 평가가 알려주듯이 그것의 지속은 그리 길지 않았다. 흑사병처럼 오래 지속되며 이 질병에 감염된 인간들의 세계관, 사회적 관계, 그를 통해서 형성되는 문학적 형식이나 내용까지 변모시키는, 그 이전의 것들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충격을 만들지는 못했다. 이 글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치호도, 김동인과 전영택도 이후 아주 빠르게 이 끔찍한 감염병에 대해서 망각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죽음’의 사회적,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특별한 주목을 통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논문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을 흡수한 죽음의 구멍이며, 집단적 망각이 작동할 수 있었던 시대의 참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장들의 진행은 이 감염병의 발병 시기와 감염 경로를 따라, 김동인, 윤치호, 전영택의 순으로 하겠다.

## 2. 낭만적 사랑과 환멸 그리고 팬데믹: 김동인 「마음이 열린 자여」

1919년 2월 1일 발행된 『창조』의 창간호는 문학에 관심을 갖고 있던 국내 독자나 유학생 사회에 적지 않은 호응—김동인은 “창간호와 제2호의 일천부가 매진되고(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놀라운 부수다) 그 다음에 1천5백으로 증쇄를 한 것도 매진되어 독자의 지지와 애호는 상당히 받았”<sup>15)</sup>라고 회고하

15) 김동인, 『조선문학의 어명—『창조』 회고』(1938),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418~419쪽.

였다—을 받았다. 하지만 동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1919년 3월 20일 발행된 『창조』 2호는 쉽게 독자들에게 배포될 수 없었다. 김동인은 이때의 사정을 1931년 쓴 『문단회고』에 “2호를 인쇄에 부친 뒤에 만세 사건이 일어났고” “조선의 사정이 이렇게 된지라 2호는 인쇄는 끝이 났어도 그냥 본사에 가려 두기로 하였다”라고 썼다.<sup>16)</sup>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원고 수합과 편집이 다 끝나고, 3·1운동이 진행된 후에 부기된 것으로 읽히는 『창조』 2호의 사고(社告)이다. 여기서 『창조』의 동인들은 “날로 급박하여오는 우리의 사정”이란 표현으로 당대의 분위기를 언급하며, “언제나, 혹 한 주일 후에, 혹 한 달 후에, 혹 한 해, 혹 십 년 후에,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 비옵지 지금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쓴다.<sup>17)</sup>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가까운 미래에도 다시 볼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표현은 3·1운동으로 인한 대규모의 피검과 투옥을 고려한다고 해도 다소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문학적 과장으로 읽지 않고, 그 시기의 예외적이며 긴박한 상황을 담보하고 있는 진술로 읽는다면, “날로 급박하여오는 우리의 사정”을 3·1운동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3·1운동 직후의 시기로 확장시켜 본다면, 이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답변을 궁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러한 시선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은 『창조』 2호가 발행되고 9개월이 지난 후 출간된 『창조』 3호에 실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창조』 2호와 3호의 발간 사이에 김동인은 3·1운동에 연루되어 3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하였고, 같은 ‘창조’ 동인인 전영택의 아내 역시 비슷한 이유로 3개월간 투옥되는 경험을 하였다.<sup>18)</sup> 감옥 안과 밖에서의 사색과 고통이

16) 김동인, 『문단회고』(1931), 같은 책, 311쪽. 다른 글에서 김동인은 “창간호 출래와 동시에 제2호 원고를 인쇄소에 보냈”으나 3·1운동의 발발로 인한 상황의 급변과 김동인의 신변을 걱정한 가족의 귀국 전보로 인해 “여는 『창조』 제2호의 교정을 중도에 내버리고 3월 5일 황황히 후사를 요한에게 부탁한 뒤에 귀선(歸鮮)하였다”라고 쓰기도 하였다. 김동인, 『조선문학의 여명-『창조』 회고』(1938), 같은 책, 418쪽.

17) 『여러분께 고향』, 『창조』 2호, 1919. 3, 60쪽.

18) 김윤식은 김동인의 “감옥행은 1919년 3월 26일에서 만 3개월간이나 6월 26일 사이”이고, “전영택의 『운명』, 『생명의 봄』, 『독약을 마시는 여인』 등 『창조』에 실린 작품군의 중요성은 그 내용성에 있었다. 전영택의 부인 채씨의 3개월간의 감옥생활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의 기록이 끝 위의 작품들이었다”라고 쓴다.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187쪽.

란 말로 거창하게 수식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창조』 3호 이후에 발표한 김동인과 전영택의 소설은 “날로 급박하여오는 우리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유의 반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창조』 3호에 김동인은 중편 「마음이 열은 자여」를 연재하기 시작하고, 전영택은 단편 「운명」을 쓴다. 「마음이 열은 자여」는 『창조』 6호(1920.5)까지 연재되었고, 전영택은 『창조』 5호부터 7호(1920.3~7)까지 중편 「생명의 봄」을 연재하였다. 하지만 19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시간적 배경—소설의 서사는 이 시간동안 진행되고 있고, 편지, 일기, 유서 등을 통해 그해 4월부터 9월까지의 경과가 프롤로그 형식으로 담겨 있다—을 가진 김동인의 「마음이 열은 자여」는 염상섭의 「만세전」 같은 3·1운동 직전의 서사와 사회적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읽긴 어렵다. 주된 사건은 주인공 K의 실연과 여행이며, 인물들의 여정을 더욱 황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1918년의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이다. 전영택의 「운명」이나 「생명의 봄」 또한 3·1운동에 연루된 인물들의 수감생활을 다루고 있지만, 이와 함께 암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사건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규모의 감염과 죽음이다. 이경훈은 「마음이 열은 자여」가 “스페인독감”의 체험에서, “「운명」과 「생명의 봄」은 3·1운동이나 독감 전염 등의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sup>19)</sup> 『창조』 4호의 「남은 말」에 적힌 “우리 동인 중에 유행성 감기로 인하여,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도 있고, 또는 귀국한 이도 있”다는 보고를 참고하자면,<sup>20)</sup> 김동인과 전영택을 위시한 『창조』의 동인들은 1918년 9월부터 진행된 인플루엔자의 참상과 살상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 미완의 것으로 그친 3·1운동의 경험과 함께 이러한 감염병의 강렬한 체험이 “혹 한 주일 후에, 혹 한 달 후”의 만남도 장담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을, 그리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Life is short, art is long)’, ‘예술을 위한 예술’(Arts for art’s sake)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혹은 인생과 그것의 반영인 예술을 수평적 대조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술을 강조하는, 『창조』 동인들의 미적 태도

19) 이경훈, 「『창조』와 실연」, 『한국문학의 연구』 6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106쪽.

20) 「남은 말」, 『창조』 4호, 1920. 2, 61쪽.



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21)</sup> 먼저 김동인의 『마음이 열은 자여』에 기록된 인플루엔자의 흔적을 살펴보고, 이것이 형상화하고 있는 주된 의미와 맺고 있는 연관을 분석해보자.<sup>22)</sup>

『마음이 열은 자여』의 주인공 K는 친구들이 발행하는 잡지에 “논문 하나와 창작 하나”<sup>23)</sup>를 발표한 아마추어 문인이고, 유학을 마치고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와 “K학교 보통과 교사”(65쪽)로 재직하고 있는 교육자이다. K에겐 오래전 결혼한 아내가 있지만, 그녀의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실망을 한 K는 평양에서 홀로 지내며 Y라는 여성과 연애를 하고 있다. Y와의 사랑을 자신이 읽었던 문학작품—“몬테 크리스토프작”(67쪽),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의 시”, “타콜의 시”, “솔로몬의 시”(68쪽), “다눈치오의 프란체스카”, “도스토예프스키의 불쌍한 사람”(70쪽)—과 비교하며 이를 예술에서 엮본 미적 경험과 동일한 것으로 체화시키려던 K는 Y의 갑작스런 결혼 소식에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계획하며, 소설가인 C에게 이러한 사정을 편지에 적어 보낸다. Y의 결혼식 날에 맞춰 K를 찾아온 C는 K를 위로하며 함께 금강산으로의 여행을 제안한다. 이 여정을 통해 자신을 흔들던 모든 감정이 한낱 미망인 것을 알게 된 K는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지만 아내는 이미 “세계를 돌던 돌림고 빨”(110쪽)에 감염되어 아들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은 아내와 아들의 무덤을 찾은 K의 모습, 그곳에서 느낀 고통과 죄책감, 비애에서 “참 삶”(151쪽)을 찾아보겠다는 K의 다짐으로 끝난다.

이 소설의 구성은 편지, 일기, 유서 등의 다양한 글쓰기 형식으로 채워진

21)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Life is short, art is long)’, ‘예술을 위한 예술’(Arts for art’s sake). 이 두 표현은 동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슬로건이자 예술의 미적 우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생명의 봄』에 등장한다. 전영택, 『생명의 봄』, 『회수분』, 문학과지성사, 2008, 130쪽. 물론 이러한 슬로건의 범위 내에서만 『창조』 동인들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태도이다. 김동인과 전영택은, 이 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마음이 열은 자여』, 『생명의 봄』 등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생과 예술의 변증법적인 길항으로 문학에 대한 사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작품 속에서 형상화하고 있다. 인생과 예술을 별개의 것으로 분리하고 그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예술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사유를 만들지 못한다.

22) 김동인 『마음이 열은 자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는 서희원, 『1918년 인플루엔자의 대재앙과 문학』(『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을 참고할 것.

23) 김동인, 『마음이 열은 자여』, 『김동인 전집』 1권, 조선일보사, 1987, 81쪽. 앞으로 같은 판본의 텍스트에서 인용이 계속될 때는 인용한 문구 옆에 쪽수만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

다소 긴 프롤로그, “시월 아흐렛날”(110쪽) Y의 결혼식이 있는 1장으로 시작해 아내와 아들의 무덤을 방문한 “십일월 보름께”(150쪽)의 13장,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151쪽)의 시간이 흐른 뒤 발송된 K의 편지 내용이 담긴 14장으로 종결이 된다. 김동인은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듯이 시간의 기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편지, 일기, 유서 등을 프롤로그에 활용하고, 소설 형식으로 진행되는 서사(1장부터 14장까지의)에도 군데군데 분명한 날짜를 적는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물들의 경험이 진행되는 시간과 공간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고, 이는 배경으로 제시된 인플루엔자의 전파와 대유행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매일신보』의 첫 기사는 10월 11일에 등장하고 거기에는 “평안북도 강계”에서 “9월 23일부터 유행성 감기가 발생”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마음이 열린 자여』에서는, 강계보다 훨씬 남쪽에 위치한 평양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이른 날짜에 이미 인플루엔자의 맹렬한 유행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9월 20일”(110쪽)에 쓴 유서에서 K는 어머니에게 자식이 먼저 가는 불효를 아뢰며, “세계를 돌던 돌림고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온 곳이 다— 흥흥한 이때에 저 같은 불효의 생각은 잊으옵시고 노처후 내내 은총 가운데 안녕히 지내”(110쪽)실 것을 당부한다. Y의 결혼식이 있는 다음날인 10월 10일 K와 C는 낮 기차를 이용해 경성으로 간 후 그곳에서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기차를 타기 전 K와 C는 “모란봉 꼭대기”(115쪽)에 올라와서 “평양서 무슨 내음새가 나는지”, 그것이 “수전노내, 돈내, 물질내, 허영내!”(115쪽)는 아닌지에 대한 농담을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맡은 냄새의 정체는 인플루엔자로 인해 매장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이 죽어 이를 화장장에서 긴급하게 처리하는 끔찍한 연기였다. “가는 길에, 서기산 화장장에서는, 일천구백십팔년의 돌림고삐로 죽은 사람을 태우는 내가, 높이 동북편 하늘로 세상 사람들을 비웃는 듯—이 장려하는 듯—이 길—게 뻗치고 있다.”(116쪽) 소설의 마지막에 밝혀지지만 K와 C가 맡은 냄새는 인플루엔자

24) 『평북 강계군에 악성의 유행병』, 『매일신보』, 1918년 10월 11일.

가 폐렴으로 진행되어 거역할 수 없는 죽음으로 가고 있던 K의 아내와 아들이 뱉어낸 삶의 마지막 한숨이며 탄식이었다. 불행이 자신을 덮치고 있다는 이상한 예감에 금강산에서 아내가 있는 함중으로 급하게 이동한 K는 아득한 의식 속에서 아내와 아이의 장례식을 목격하지만 현실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K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K는 조용하게 들리는 “슬픈 찬미소리”와 “기도”, 어머니의 “늙은 눈”에 귀 “눈물”(146쪽)을 듣고 보지만 며칠 후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에야 이 비극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팔월 그믐께(음력) K의 안해는 이번 세계를 휘돈 돌림고뿔에 걸려서 자리에 누웠다. K의 아들도 그와 함께 고뿔이 들렸다. 구월 초생개는, K의 아들 순덕이는 낮지 못하였어도, K의 안해는 전쾌에 가까웠다. 고뿔이 낮는 것과 함께 그에게는 발광증이 또 일어났다. 구월 초사흘날 K의 안해는 없어졌다. 동리에서 모두 나서서 찾은 결과, 그가 산 중동에 기절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병세는 갑자기 더하여졌다. 이때부터 일승일강, 모자가 서로 발걸음을 맞추어서 앓았다. K의 안해가 열이 날 때는 K의 아들도 나고, K의 안해가 좀 내릴 때는 아들도 따라 내리고, 이렇게 며칠 지나다가 모자의 병은 함께 폐염으로 변하였다….

K의 안해는, 죽을 줄은 벌써 깨닫고, 죽기 전에 한 번만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다, 다만 한 번이라도 만나 보고 싶다, 그저 죽으면 고흠이 되겠다고 매일 울며 부르짖고, 아들도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우는고로, K의 어머니는 평양까지 갔으며, K는 금강산을 갔다므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돌아와서 보니, K의 안해는 일어나 앉았는데, 이상한 것은 그의 낮이 K의 낮과 거반 같이 된 것이다. 한참 있다가 오후 한시쯤 안해가 죽고, 이튿날 새벽 두시쯤 아들이 따라 죽었다. 안해가 죽을 때 마지막 말도, 순덕의 아버지를 다만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날이 K가 금강산서 도착한 날이다. 이튿날 뒷뿔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운운… (149쪽)

인용한 것처럼, K의 아내와 아들은 10월 4일인 “팔월 그믐께(음력)”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고, 곧 병세는 심각한 섬망과 절망적인 폐렴으로 진행된

다. 그들은 K가 금강산에서 함흥으로 도착하기 직전 죽음을 맞이한다. 프롤로그의 일기에 적힌 완만하고 안락한 일상의 시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질병의 경과에는 1918년 인플루엔자의 건잡을 수 없는 전파와 지역 감염, 확진과 함께 찾아오는 사망이라는 팬데믹의 끔찍한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려준다. 유서에 적힌 것처럼 “세계를 돌던 돌림고삐”의 전파는 9월 20일 이전 평양에서 확연하게 관찰되었고, 그것은 불과 보름이 안 되는 기간에 함흥이라는 시외의 지역까지 빠르게 확산되었다. 10월 10일 K와 C가 냄새를 맡았으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서기산 화장장”의 연기가 알려주는 것처럼 감염된 시체는 매장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고, 상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해졌다. 하지만 정확히 동일한 시간에 K는 육체의 애욕을 사랑의 맹세로 착각하고 문학에서 읽은 자살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는 “십오륙세기 식 굉장한 건축 안에 혼자 앉아서, 로—만틱한 옛적 기사 이야기라도 읽는 때의 슬픔”(118쪽)이라는 표현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며 경험한 적 없는 대상에게 느끼는 허위의 노스텔지어이다. 김동인은 K의 낭만주의에 기초한 미적 체험을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아내와 아들의 고통 위에 겹쳐놓으며, 그것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표현한다. 예술과 인생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다고 김동인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열은 자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미적 태도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다. 김동인에게 예술은 고통의 폐허를 경험한 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참 삶”(151쪽)이며, 그것은 낭만적 예술의 무덤가를 비추는 “은빛 구름 틈으로 보이는 해”(151쪽)와 같은 것이다. 김동인은 후에 『창조』 시기의 예술관을 평가하며 이렇게 쓴 바 있다. “이렇듯 우리는 소설의 재재를 구구한 조선 사회 풍속 개량에 두지 않고 ‘인생’이라 하는 문제와 살아가는 고통을 그려 보려 하였다. 권선징악에서 조선 사회 문제 제시로— 다시 일전하여 조선 사회 교화로— 이러한 도정을 밝은 조선 소설은 마침내 인생 문제 제시라는 소설의 본무대로 올라섰다.”<sup>25)</sup>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말에서 두 예술이 지

25)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1929),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22쪽. ‘창조’의 동인들이 자신들의 미적 태도라고 주장한 ‘참인생’과 ‘참예술’의 이념에 대해서는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시하는 대상은 같은 것이 아니다. 김동인에게 참 된 예술은 앞선 예술에 대한 환멸이라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탄생하는 것이다. 애도의 찬미가 아름다운 것은 여기에는 소중한 것을 상실한 고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 3.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식민지 지식인의 일상: 1918년 윤치호의 『일기』

1880년대와 1890년대 초반 일본, 중국,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을 가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지식인 윤치호(1865~1945)는 거의 평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오랜 기간(1883.1.1~1943.11.24)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일기는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데, 하나는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언어, 즉 한문(1883.1.1~1887.11.24), 한글(1887.11.25.~1889.12.7.), 영어(1889.12.7.~1943.10.7)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일기에 담긴 일상과 사회활동 내역, 국내외 정세에 대한 내밀한 견해와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그의 일기는 개화기 지식인의 문체와 언어에 담긴 근대적 지식과 글쓰기 실천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sup>26)</sup> 그리고 개인 저작물이지만 일제시기 국내외 정세와 일상, 이를 평가하는 윤치호의 솔직한 판단까지 담긴 “한국 근대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sup>27)</sup>

윤치호의 일기는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일기의 형식을 빌려와 자신의 내면을 기술하는 그런 형태의 문학 작품은 아니다. 윤치호는 자신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64~76쪽을 참조할 것.

26) 이에 대한 연구로는 윤영실, 『미국과 식민지 근대주체 형성의 한 경로-『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아카데미, 2003; 이선경, 『윤치호의 문화횡단적 글쓰기: 초기 일기(1883~1895)에 나타나는 언어, 장르, 주체구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6, 비교문학회, 2012; 손정수, 『윤치호 초기 일기의 장르적 성격』, 『한국문화』 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등이 있다.

27) 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김상태 편역, 역사비평사, 2001, 48쪽. 윤치호 일기에 담긴 사료적 측면과 이를 평가하는 윤치호의 내면을 주목한 연구로는 정용화, 『문명개화론의 빛-『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김상태,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제165집, 역사학회, 2000 등이 있다.

의 일기가 타인의 독서물이 되리라는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백이나 사유의 면에서 솔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윤치호의 일기는 어떤 경우 문장으로라도, 그 내용으로도 한 편 한 편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글이 되기 어려운 면모를 가지고 있다. 윤치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축적된 기억과 경험의 보증하에서 하루하루를 환기하며 일기를 썼다. 그는 일상에서 체득한 사유가 반복될 경우 여러 번 기술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듯이 축약적으로 제시하거나 그날그날의 감상에 의해 사건을 난잡하게 질서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감정에 따라 의미 있게 기술하고 있다. 윤치호의 일기는 출간을 염두에 두고 쓴 글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절대적 형식이 존재한다. 윤치호의 모든 일기가 시작될 때 작가의 서명처럼 빠지지 않고 적힌 날짜와 요일, 날씨가 그것인데, 이는 윤치호의 개인적 시간을 외부와 연결시키는 기호이다. 일기에 외형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시간의 기호가 그의 일기를 세계의 일상과 함께 읽어야만 하는 것으로 만들며, 이렇게 읽을 때 윤치호의 제한된 세계는 당대의 심층으로 투영된다. 모리스 블랑쇼가 “달력은 일기의 악마이다. 그는 일기에 무엇인가를 붙여넣고 구성하며 선동하고 수호하는 자”라고 비유하며, “일기는 ‘달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는 무서운 조항에 따르고 있다”라고 쓴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sup>28)</sup> 많은 연구자들이 눈길을 두지 않았지만 윤치호의 일기에는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1918년은 한국 근대사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그리 주목받지 못한 시기이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1919년 3·1운동을 배태하게 되는, 염상섭의 어법을 빌려서 말하자면, 식민지적 모순이 분출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축적된 ‘만세전’(萬歲前)의 해일뿐이다. 방대한 윤치호의 일기를 발췌하여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한 연구자 김상대는 책의 후반부에 윤치호의 삶과 국내외 정세를 비교하는 연표를 작성하며 1918년을 다음과 같이

28) 모리스 블랑쇼, 『도래할 책』, 심세광 역, 그린비출판사, 2011, 351쪽.

정리하였다. 윤치호는 이 해에 “54세. 연희전문 이사가 됨”, 국내에는 6월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었고, 10월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이 14개조 평화안을 발표” 하였고,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다.<sup>29)</sup> 이런 정리가 그리 문제 있지 않다는 듯이 윤치호는 1918년 1월 1일의 일기를 한 해의 시작에 대한 기대와 다짐 없이 “신년 방문”<sup>30)</sup>이라는 일상만으로 기록한다. 1918년 윤치호의 일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은 어떠한 수식어나 설명도 없는 “YMCA에 출근했다”는 단순한 보고인데, 이것이 하루 중 유일하게 기록할만한 사건이었던 날들도 대부분이다.<sup>31)</sup>

윤치호의 일기 중 YMCA에 대한 진술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항 중 하나가 그와 가족들의 육체적 상태이다. 윤치호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를 정밀하게 체크하여 일기에 기록하고, 자녀들이 앓고 있는 홍역이나 감기, 그리고 아내와 딸의 임신, 출산, 사산과 같은 사건을 빼놓지 않고 적는다. 윤치호의 종교관에서 길러진 것이 분명한 직업적 성실성은 대단히 엄격하여, 그는 웬만한 일—“YMCA에 출근했다. 아내가 매우 아프다.”(1918년 4월 15일)<sup>32)</sup>—에는 결코 결근을 하지 않았다. 그런 윤치호도 1918년에 총 3번 질병을 이유로 YMCA에 결근하는 일이 있었다. 첫 번째 결근은 8월 23~25일로 윤치호는 “오른편 골반을 빼어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유발”(188쪽)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열하일기』를 탐독”(188쪽)하였다고 썼다. 두 번째 결근은 9월 21~22일로 윤치호는 19일 일기에 “YMCA에 출근했다. 독감에 걸렸다”(196쪽)라고 그 이유를 기록하였다. 윤치호가 걸린 독감은 병세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그리 강한 것 같진 않은데, 그의 가족 중 누구도 그의 독감에 감염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다는 점에서, 이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윤치호는

29) 윤치호, 앞의 책, 647쪽.

30) 윤치호,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6』, 박미경 역, 국사편찬위원회, 2015, 117쪽.

31) 1918년 1월만 예로 들자면, 윤치호는 한 달 중 8일의 일기를 “YMCA에 출근했다”는 한 구절로만 정리하고 있다.

32) 윤치호, 위의 책, 156쪽.

이 질병이 날씨에 원인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며, 9월 21일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한다. “지독한 독감으로 몸져누었다. 일종의 인플루엔자다. 이런 철에 맞지 않게 쌀쌀한 날씨는 농작물과 사람에게 해롭다.”(197쪽) 윤치호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의 변화를 독감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 번째 결근은 달랐다. 9월의 독감이 호전되고 정확히 한 달 후인 10월 21일 윤치호는 이렇게 쓴다. “오후에 YMCA에 출근했다. 메리 애브(윤문희)와 선회가 독감으로 앓고 있다. 도시 전역에 지금 유행성 감기, 즉 인플루엔자가 퍼져 있다.”(206쪽) 10월의 독감은 이전 윤치호가 경험했던, 그 결과 항체가 생겨 면역이 만들어진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달리 빠르게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감염시키기 시작한다. 자녀들이 독감에 걸리고 3일 후인 10월 24일 아내가 감염된다. “메리 애브(윤문희)가 좀 나아졌다. 아내도 독감을 앓고 있다. 주로 예방하라는 충고를 따르지 않는 끔찍한 고집 때문이다. 아내는 너무 무례하고 너무 게으르다!”(207쪽) 윤치호의 일기에는 집과 직장, 그의 동선에 따른 사건의 기록만이 담겨 있기에 윤치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질병을 일종의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방책에 대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그 사회적 전파를 어떻게 가늠하였는지 정확하게 알긴 어렵다. 하지만 윤치호가 읽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매일신보』의 10월 22일 기사는 그가 가진 지식의 대략적인 범위와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돌림감기! 매양 이맘때에는 돌림감기들이 많이 유행하지만은 금년과 같이 비상히 심하게 돌림감기가 유행하기는 아파 처음이라 한다. 경성 안에 어느 집에든지 이 감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집이 없으며 또 들어가기만 하면 집안 식구의 반수 이상은 영락없이 몰아치는데 감기의 성질이 극히 사나워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번 걸리면 이삼일 동안은 고통하는 분수가 염병만 못지 아니하고 앓고 나온 뒤에도 비상히 쇠약하는데 후원이 이와 같이 집집에 유행이 되는 고로 관청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줄고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이 많이 감하는 것은 전일에도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중략)… 이 돌림감기에 대하여 동경 전염병 연구소의 이목 의학



박사의 말한 바를 본즉 돌림감기는 지금으로 삼십 년 전 온 세계에 유행할 때에 독일학자 바이벨 씨가 그 병의 근본되는 바 극히 적은 미균을 발견하고 이것을 ‘인플루엔자’라 이름 진 뒤에 이 병을 그 뒤로 ‘인플루엔자’라 부르게 되었으며 … (중략)… 이 병은 대기 전염되는 것인데 전염되는 경로는 기침할 때에 튀는 침방울에 병독이 섞여 공중에 비산하였다가 거기서 호흡하는 사람에게 병이 생기는 고로 기침을 할 때에는 수건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여 전염을 막지 아니하면 홀연 온 집안에 전염이 되며 예방으로는 목구멍과 코 속을 조심하고 음식 먹기 전후나 목욕 때에는 양치를 잘하여 목구멍을 정하게 조심하고 또 장위를 건강하게 하여 몸이 병에 대항할 기운을 강하게 하며 술이나 담배를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 하였더라.<sup>33)</sup>

『매일신보』의 기사와 윤치호의 일기에 적힌 아내에 대한 질책이 알려주는 것처럼, 당대의 상식에서 독감은 인플루엔자라고 호칭되는 미세한 균(黴菌)에 의한 감염의 결과였다. 1892년 러시아의 식물학자 드미트리 이바놉스키는 세균여과기를 통과하는 ‘여과성병원체’를 처음 발견하였고, 이후 의학자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아서 그 당시의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이 미균을 독감의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사실 바이러스(Virus)이며 이를 처음 볼 수 있게 된 것은 1939년 전자현미경이 사용되고 나서이다. 하지만 1918년의 사람들은 당시의 기술로는 관찰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를 아주 작은 세균이라 여겼고, 세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알려준 개인위생과 공중의생의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34)</sup> 다행히도 대기를 통한 전파와 타액으로 인한 감염은 그리 틀린 질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은 아니었다. 윤치호가 아내의 무례와 게으름을 질책하는 것은 그녀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기침을 하거나 양치질 같은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방하라는 충고”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감은 10월 28일부터 윤

33) 『전 세계를 석권하는 독감은 세계적 대유행인가』, 『매일신보』, 1918년 10월 22일.

34) 로라 스피니, 위의 책, 61~74쪽.

치호에게서도 증상이 관찰되고, 31일 온 가족에게 전파된다. “어머니 생신이 자 독감의 날이다. 서모가 편찮으시고 아내도 아프고 선희 엄마도 아프다.”(10월 31일 일기, 208쪽) 윤치호는 이 독감으로 인해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출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앓는다. 이 기간 대부분의 일기는 “아파서 집에 있었다”(10월 29일, 30일, 11월 1~5일)는 문장으로 짧게 채워진다. 이는 그 주변의 몇 해(1917~1919년) 중 가장 오랜 기간의 결근이며, 윤치호의 일기가 작성된 전 기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질병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윤치호가 어떤 경로로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까 묻는 것은, 답하기 쉽지 않다. 사회적 활동이 많았던 윤치호에게 그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보았고, 다양한 대중 집회나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감염병이 국내로 전파된 사정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다. 윤치호는 1918년 9월 9일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모든 조선 철로의 기차는 오직 한번만 편도로 달린다. 이를테면 매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네 번 운행되었는데 이제 매일 아침에 출발하는 기차 한 대 뿐이다. 서울에서 제물포까지는 매일 기차 아홉대가 운행되었다. 이제는 두 대만 운행되고 있다. 시베리아에 군대와 군수물자를 나르는 일에 마지막 한 대의 기차 차량까지 모두 투입되고 있다.”(193쪽) 같은 해 7월 17일 일기에 쓴 것처럼 “일본의 시베리아 간섭”(178쪽)은 물자와 사람의 국가 간 교통을 이주 빠르게 증대하였고, 그 교통의 통로를 따라 들어온 인플루엔자가 전 조선을 감염시킨 것이다. “매우 나쁘다! 과연 이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1918년 7월 17일, 178쪽) 윤치호는 정치적으로 세계의 안부를 물었지만, 세계는 이 질문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응답하였다.

윤치호는 질병에서 완쾌된 이후 자신의 건강을 다시 위협하지 않았던 이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이나 심각성에 대해, 그것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급을 하진 않는다. 이후 윤치호는 1919년의 3·1운동과 파리강화회의를 독립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독립운동은 일종의 정치적 인플루엔자다”(1919년 3월 27일, 286쪽)라고 표현할 뿐이

다. 하지만 이 비유에 담긴 심정이 냉소뿐일까. 이것이 1918년 인플루엔자를 경험한 직후의 비유라면, 그것은 이전의 인플루엔자를 가지고 비유하는 것과는 다른 함의를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전의 인플루엔자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가벼운 질환이었다면 1918년의 인플루엔자는 감염자는 물론 그 주위까지 빠르게 감염시키는 전파력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정치적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헌병·군인”뿐만 아니라 “갈고리·곤봉·칼 등으로 무장한 일본인 날품팔이”까지 동원해 “만세”를 외치는 군중을 공격하게 만드는 저열하고 무자비한 방법을 채택”(1919년 3월 26일, 286쪽)하였다. 윤치호의 말처럼, “독립운동”은 “월슨 대통령의 은혜로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할 때까지 만세를 부른다”는 “순진한 조선인들”(1919년 3월 27일, 287쪽)의 참여로 획득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진단을 내렸지만, 어떤 처방도,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환자에게 달려가 의료 행위를 할 용기도 없는 의사처럼 윤치호는 조선인들의 죽음과 고통을 처연하게 목도할 뿐이다.

윤치호는 1918년의 마지막 날에, 그 해의 시작을 평일과 별 다른 차이 없이 일상적으로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안녕, 1918년! 모두에게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227쪽)라는 묵상으로 끝내고, 1919년의 세시를 “주님, 저희를 빛과 사랑으로 인도해주세요!”(229쪽)라는 기도로 시작한다. 죽음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 인간이 대개 신을 부르짖으며 이 공포에서 스스로를 견인하는 상례를 생각한다면,<sup>35)</sup> 윤치호가 보인 이 변화의 근원이 정치나 역사가 아니라 1918년의 인플루엔자에 있다고, 감염을 통해 생긴 미약한 정신적 항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35) 윤치호와 동시대 지식인인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성과 문명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안겨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그 사유의 결과를 전쟁 중이던 1915년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로 완성한다. 이 글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술과 종교를 구상하였다고 설명한다. 종교에서 주장하는 영혼의 불멸성은 프로이트에게 죽음이란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창의적 고안에 지나지 않는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프로이트 전집 15: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7, 참조.

#### 4. 3·1운동, 감옥, 그리고 인플루엔자: 전영택, 「운명」, 「생명의 봄」

전영택의 단편 「운명」과 중편 「생명의 봄」은 3·1운동과 투옥, 그리고 '1918년 인플루엔자'를 주된 제재로 다루고 있다. 「운명」과 같이 『창조』 3호에 연재되었던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가 소설의 서사에서 1918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팬데믹 2차 대유행 시기—앞 장에서 몇 차례 서술한 것처럼 프롤로그에 포함된 편지와 일기, 유서 등을 포함하자면 「마음이 열린 자여」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간은 1918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를 다루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선택함으로써 3·1운동에 대한 언급을 소설 속에서 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운명」과 『창조』 5호부터 연재되기 시작한 「생명의 봄」은 1919년 식민지 조선을 뒤흔든 두 가지 사건, 즉 3·1운동과 팬데믹을 통해 당대의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 동인으로 활동하던 시절 전영택 소설의 특징이라면, 그가 소설 속에서 그리고 있는 내적 현실이 그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과 시간적으로 아주 근접한 동시에 경험적으로 밀접하다는 점이다. 「운명」의 주인공 오동준은 비슷한 시기에 감옥살이를 경험한 김동인이 모델인 것으로 오해되었으나 이경훈의 연구를 통해 ‘창조’ 동인인 “이동원(李東園), 즉 이일(李一)”임이 확인되었다.<sup>36)</sup> 「생명의 봄」 역시 주인공 나영순은 전영택 자신이며, 영선은 “여선생으로 만세부르다가 잡혀서 감옥생활”<sup>37)</sup>을 했던 그의 아내 채혜수를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작가에 의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작가의 상상력이 현실에서 배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영택은 이보다는 경험의 사실적 소묘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는 전영택이 일본 유학 시절 접했던 문학경

36) 이경훈, 앞의 글, 109쪽. “「운명」은 이 소설과 나란히 『창조』 3호에 실린 이일의 「동경이 잘 있거라, 및 김환의 「동도의 길」, 그리고 이일이 6호와 7호에 게재한 「신생의 일(日)」, 「흑연일총」 등과 관련되어 있다.”(같은 글, 109~110쪽)

37) 전영택, 「나의 문단생활 회고」(1950), 『늘봄전영택전집』 3권, 표인복 엮음, 목원대출판부, 1994, 493쪽.

힘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전영택의 유학시절(1912~1919) 일본문단의 흐름을 주도하던 것은 다야마 가타이를 대표로 하는 자연주의이다. 인간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허구적 서사 속에 접목하였던 유럽의 자연주의와는 달리 일본의 자연주의는 “작가의 사생활을 소설 속에서 충실하게 객관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를 탐구하는 것을 ‘제일의(第一義)’로 삼아 무엇보다 중요시”<sup>38)</sup>하였다. 전영택에게 있어 진정한 자아는 실제 경험한 삶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이고, 소설의 예술적 핵심은 이를 보다 진정성 있게 재현하는 것이었다.

「운명」은 김윤식의 표현에 따르자면, 한국근대문학에서 “감옥살이를 그린”, “최초”의 소설이며,<sup>39)</sup> 수감 생활 중 맞이하게 되는 이별의 구체적 이유가 ‘1918년 인플루엔자’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경성감옥”<sup>40)</sup>에서 “석 달”(24쪽)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오동준은 서술자의 제한된 정보로 인해 어떠한 죄목으로 투옥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같은 방에 수감된 “CK목사” “역시 이번 만세 사건”(37쪽)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을 참고하자면 3·1운동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동준은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적막함을 견디기 위해 연인 H에 대한 공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공상 속 H와 오동준은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는데, 어떨 때 오동준은 사랑의 언약을 떠올리며 그녀와의 행복한 재회와 결혼을 상상하고, 어떨 때는 오지 않는 그녀를 “사탄”(29쪽)이라 칭하며 증오한다. 아무런 연락도 없는 H의 연유를 동준은 “옳다,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30쪽)라고 추측하거나 아니면 “옳다, 병이 났다, 대단한 병이 났다, 입원하였다. 아니 퇴원하여서 고적한 방에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30쪽)라고 상상하는데, “감옥에 들어간 지 꼭 백 일 만에”(39쪽) 출소한 오동준은 전에 받은 편지를 다시 읽던 중 한 구절을 읽고는 그녀가 죽었다고 단정하며, 죽은 그녀를 찾기 위해 동경으로 떠난

38) 스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_일본 근대성의 형성과 사소설담론』, 한일문학연구회 역, 생각의 나무, 2004, 23쪽.

39) 김윤식, 『김동인연구』, 민음사, 2000, 131쪽.

40) 전영택, 「운명」, 『화수분』, 문학과지성사, 2008, 24쪽. 「운명」과 「생명의 봄」은 이 판본을 사용하였다. 인용 후에는 간략히 쪽수만 표기하겠다.

다. 오동준에게 H의 죽음을 확신하게 한 문구는 “저는 죽어도 당신 곁에서 죽겠습니다. 어쩌면 저를 못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열은 거의 사십 도까지 되었습시다”(41쪽)라는 구절이다. “삼월 십일 소첩 H 올림”(42쪽)이라는 시간의 표지에 따르자면 오동준이 예상한 질병은 2차 대유행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특히 조선보다는 일본에서 더욱 맹렬하게 재유행하고 있었던 1918년의 인플루엔자이다.<sup>41)</sup> 당대의 사람들은 이 감염병의 살상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온이 “거의 사십 도”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인지될 수 없었다. 하지만 변심과 병사라는 오동준의 슬픈 예감은 절반씩만 맞는데, H는 죽지 않았고 “어떤 경상도 사람을 만나서 동거”하며 “수태한 지 오 개월”(43쪽)인 상태였다. 한 달 후 도착한 편지에서 H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연유를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자신—“한번은 제가 우연히 독감을 앓아서 사흘이나 열이 오른 채로 내리지 아니하여 아무런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있었나이다.”(48쪽)—과 이를 간호하던 경상도 남자 A의 전염,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육체적 접촉—“더구나 그의 병이 나를 간호해주다가 내 병이 전염되고” “그런 가운데 사랑이 생기고,, 따라서 세상에 낯을 들지 못할 몸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49쪽)—으로 설명한다.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어린 벗에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은 고백하지 못한 마음의 뜨거운 상태를 비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더 치명적인 질병은 더욱 강렬한 사랑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운명』은 팬데믹의 외중 생존하기 위해 뜨거워진 감염된 육체를 밀접하게 접촉한 남녀의 사랑과 임신율, 사랑을 잃은 사람의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염택이 선택한 제목 ‘운명’이 알려주는 것은 오동준이 맞이한 되돌릴 수 없는 이별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의 감염과 전염을 통해 치명적 사랑의 숙주가 된 H와 A의 인연이다. 『운명』이 단편이라는 분량의 제한 속에서 3·1운동과 투옥, 팬데믹이라는

41) 『매일신보』의 1919년 2월 13일 기사(『유행성 독감 경성에는 없는 모양 동경서는 창궐 중』)에 따르면 “유행성 독감”은 “경성에는 없는 모양”이나 “동경에는 창궐” 중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4월 22일 기사(『순궁전하 御恙 유행성 감기로』)에는 다이쇼 천황의 둘째 아들도 이 질병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고 보도되었다.

제재를 소략하게 다뤘다면, 『생명의 봄』은 중편이라는 분량을 통해 『운명』의 소재를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생명의 봄』에서 주목할 것은 이 중편이 그동안 “11월 초순부터 다시 유행하여 1920년 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으나 1918년 독감 수준은 아니었다”<sup>42)</sup>는 이유로 개별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3차 대유행 시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식민지조선에서 1918년 9월부터 시작되었던 인플루엔자의 2차 대유행은 1919년 1월 이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매일신보』의 보도 방향도 인플루엔자가 재유행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sup>43)</sup> 종식된 것으로 여겨졌던 이 감염병이 다시금 신문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 10월이다.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치는 ‘서반아’ 감기(!)가 상해에 발생하였다”<sup>44)</sup>는 국제적 속보가 10월 9일 보도 되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유행으로 진행되었다.<sup>45)</sup> 국제적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병은 곧 조선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sup>46)</sup> 1919년 12월 “사망한 경성 용산의 환자수효는 577명”<sup>47)</sup>이었고, 1919년 11월부터 1920년 1월까지 경성에서만 대략 “2600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sup>48)</sup> 『생명의 봄』이 흥미로운 것은 신문 기사로 예측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의 국제적 감염의 경로가 아닌 지역적 발생과 확산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의 봄』은 주인공 나영순의 시선을 따라 “목사 P○○씨”(53쪽)의 장례식<sup>49)</sup>이 거행되는 1919년 12월 18일부터 소설 창작에 대한 다짐을 하며

42) 김택중, 앞의 논문, 178쪽.

43) 『大阪에 毒感復發, 매일 평균 이십인』, 『매일신보』, 1919년 1월 19일; 『유행 전에 예방하라, 내지에서는 이 독감의 두 번째 유행에 죽는 사람이 많다 한다』, 『매일신보』, 1919년 2월 5일.

44) 『可畏한 악성 감기, 지나 상해에서 또 발생한 듯』, 『매일신보』, 1919년 10월 9일.

45) 『惡感又復流行?』, 『매일신보』, 1919년 11월 16일. 이 기사의 말미에는 “금일과 같이 교통이 빈번한 때에 언제 조선으로 건너올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더욱 주의하여 이번에는 이 악성감모가 도무지 조선 땅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주의가 담겨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46) 『경계할 악성 감기』, 『매일신보』, 1919년 11월 25일.

47) 『악성감기의 내습으로 580명이 사망』, 『매일신보』, 1919년 12월 15일.

48) 『26000명의 환자를 낸 작년말 이래의 악감』, 『매일신보』, 1920년 1월 20일.

49) 전영택은 『생명의 봄』을 연재하기 시작한 『창조』 5호의 편집후기에 이 작품을 “좀 엄숙한 마음으로 읽어”달라고 하며, 그 이유를 “그 중의 P목사의 장식(葬式)은 사실이외다. 12월은 11월로 알아 주십시오”라고 밝히고 있다. 『마금나문말(교정을 마치고)』, 『창조』 5호, 1920. 3, 100쪽. 뿐만 아니라

평양을 떠나는 1920년 1월 1일까지의 시간과 사건을 담고 있다. 영순의 걸음은 비통한 울음과 구슬픈 찬미로 채워진 “남산현 예배당”(53쪽)의 장례식장을 거쳐, 아내 영선이 수감된 열악한 환경의 “평양 감옥”(59쪽)으로, 그리고 가출옥한 아내가 입원한 “기흥병원”(95쪽)으로 진행된다. “죽음의 겨울 지나 가면 생명의 봄이 돌아오네”(75쪽)라는 찬송의 구절에서 가져온 제목이 알려주는 것처럼 소설의 주제는 생명과 희망에 대한 자연적 순환을 회구하고 있지만, 소설의 변화하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에 대한 절망과 지속되는 겨울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죽음이다. “죽음의 겨울”을 추동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족을 상실한 식민지인의 절망과 상태만은 아니다. 그것은 정확히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든 ‘1918년 인플루엔자’이며, 그 공동묘지 같은 처연한 삶을 더욱 비감한 것으로 만드는 식민지적 상황이다. “이번 ○○○○○○ 사건에 체포되어 입감하시더니, 그 철창의 몸쓸 고초로 인함인지 천만 불행히 병마의 침습을 받아서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잃었<sup>50)</sup>”(55쪽)다고 서술된 P목사의 사인, “감옥에서 들린 유행성 감기로 기침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고 두통이 나서 앓기를 시작하였다”(95쪽)는 영선의 병인 등은 ‘1918년 인플루엔자’가 집단 감염과 집단 면역을 통해 종식된 것처럼 보인 휴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이고 좁은 공간에 과밀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사회적으로 배양되고 있었음을, 그것이 병든 채 출소한 사람과 옥사한 시신을 통해 사회로 전파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전영택은 인플루엔자의 상황을 이렇게 쓴다.

이때의 유행성 감기는 그 형세가 자못 맹렬하였다. 교회는 앓는 사람으로 출석이

---

전영택은 이후에 문단 생활을 회고한 글에서 “이 『생명의 봄』은 현역작가 박영준 씨의 선친 박석훈 목사가 만세사건으로 옥사하였을 때에 전교회와 시민이 합세하여 눈물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광경으로 첫 장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다. 전영택, 『문단의 그 시절을 회고함』(1950), 『늘봄 전영택 전집』 3권, 표인복 엮음, 목원대학교출판부, 1994, 494쪽.

50) P목사가 연루되어 체포된 “○○○○○○○ 사건”은 ‘기미독립만세 사건’으로 해석된다. 인용하고 있는 문학과지성사 판본에서는 “○○○○○ 사건”이라고 편집했지만, 원문이 게재된 『창조』 5호에는 총 여섯 글자의 “○○○○○○○ 사건”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용은 원문을 참고해 “○○○○○○○ 사건”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민의 『『창조』와 3·1운동』, 『한국민족문화』 69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이 있다.



반이나 감해지고 이 집 저 집서 그치지 아니하고 죽어 나간다. 하루에 공동묘지로 나가는 수가 평균 오십 인이 넘는다 한다. 그것도 꼭 젊은이요 그중에서도 젊은 부인이라 한다. (95쪽)

유행성 감기로 입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선은 일등실예를 들어가지 못하고 보통실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방의 다른 사람도 같은 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많았다. 처음에는 어떤 전도사의 부인이 그 딸의 병으로 입원하였다가 사흘 만에 죽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 다음에 어떤 모녀 두 사람이 병은 다 나은 것을 한 양생 거리로 들어와 있다가 무사히 나가고, 그 후에 어떤 젊은 부인이 여덟 살 난 아들을 데리고 둘이 인플루엔자로 입원하였다가 이틀 만에 아들을 두어 두고 죽어 나갔다. 그는 바로 영선의 누운 침대 옆에 있었다. 영선은 그가 마지막에 “아이 죽겠소, 아이 죽겠소” 야단하는 것과 군소리하고 헛손질하는 것과 벌거벗은 몸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다. 숨이 차차 차차 높아가다가 최후의 괴로운 부르짖음을 발하고 차차 숨소리가 낮아지다가 종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바로 두어 자 사이에 두고 보았다. 아니 보려고 힘썼지만 아니 볼 수가 없었다. (110~111쪽)

전영택의 서술은 어떤 문학작품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당대의 참담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진술에서 읽을 수 있는 감염의 상황과 규모, 매장되지 못하고 화장되거나 들판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하층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최소한의 수치인 것이 분명한 공동묘지에 안치되는 하루 평균 오십 명의 사망자, “이틀” 또는 “사흘”만에 인간을 끔찍한 시체로 만드는 감염병의 살상력, 견딜 수 없는 통증과 고통을 주는 병세까지, 『생명의 봄』에는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로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었던 죽어간 자들의 비참이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전영택은, 그래서 영순은 “한방에서, 같은 병으로, 자리를 가지런히 하고 누었다가?”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116쪽)하는 예측할 수 없는 인플루엔자의 인과를 “하나님의 섭리”(116쪽)인지, “운명”(117쪽)인지, 아니면 영선이 말하는 “당신의 사랑”(117쪽) 때문인지 깊게 사유한다. “그는

병원 출입문을 나서서 층층대를 내려오면서, 병원 담장을 돌아가면서, 아내의 소중한 것이 신묘하고 다행스러운 기쁨을 느끼면서도, ‘죽음’이란 더욱 신기하고 알 수 없는 문제를 아니 생각할 수 없었다.”(121쪽) 영순의 사색은 길어지는 산책과 함께 연장되며, “남산현 예배당 대문 앞”(123쪽)에 이른다. 그곳에서 영순은 평양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설양의 설경”(123쪽)을 바라보며, “언제 보든지 몹시도 아름다운 그 자연미에 견딜 수 없는 동경과 애착을 느껴 한참이나 엑스터시(황홀 상태)”(123쪽)에 빠진다. 그리고 이 “순간의 필링”(123쪽)은 자신이 목도한 자연과 세계를 “자기 손으로 표현하고 싶은” “예술적 충동”(123쪽)으로 승화된다. “이담에 소설이나 하나 씩시다”(135쪽)라는 자신의 말을 실행하듯 소설의 말미에 영순은 깊은 각오를 하고 평양을 떠난다. 1920년 3월 발간된 『창조』 5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된 『생명의 봄』은, 그 사건의 연결성에서나 시간의 연속성에서나 평양을 떠난 영순의, 그래서 전영택의 “예술적 충동”이 형성한 팬데믹의 재현이다.

## 5. 감염된 자아의 사회적 고백: 결론을 대신하며

1918년 봄부터 1920년 봄까지 2년 동안 지속된 ‘1918년 인플루엔자’는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셀 수 없을 정도의 인명을 희생시켰지만, 아주 빠르게 망각 속으로 사라졌다. 세계적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종전되었고, 국내적으로 3·1운동이라는 사건으로 민족적 열망이 분출되었기에, 거대한 역사적 사건의 전후로 ‘1918년 인플루엔자’에 대한 기억은 잠식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묘지』란 제목으로 1922년 7월부터 9월까지 『신생활』에 연재되었으나 잡지의 폐간과 함께 미완으로 끝난, 2년 후인 1924년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대일보』에 제목을 바꿔 『만세전』으로 완성된 연상섭의 중편은 팬데믹이 완전히 종식된 1920년 봄으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적 격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에 대해서는 거의 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소설의 배경이 “조선에 만세가 일어나던 전해

의 겨울”<sup>51)</sup>인 1918년의 12월을 다루고 있음에도, 주인공 이인화의 귀국이 “그해 가을부터 해산 후더침으로 시름시름 앓던 나의 처”가 갑자기 “위독”(7쪽)해진, 아내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염상섭의 시선에 1918년의 인플루엔자는 관찰되지 않는다. 『만세전』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감염의 흔적은 경성으로 귀국하기 전 동경의 “M현”에서 여급과 농담을 주고받던 이인화가 “P자를 껴안으며 키스를 하려” 하자 “무심코 썼던 P자”가 보이는 “에구머니, 사람을 죽이네!”(22쪽)라는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며,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타액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졌던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전부이다. 그것도 염상섭의 별다른 설명이 없기에 세심하게 읽어야 비로소 읽히는 미세한 흔적이다.

윤치호의 일기는 그 글쓰기의 특성 상 하루분의 사건과 감상을 담아내고 있기에, 그리고 윤치호 자신을 비롯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1918년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사항을 읽을 수 있다. 비록 그 기술이 윤치호의 완치와 함께 중단되고, 이내 일기의 관심사에서 제외되었지만, 1918년의 세말과 1919년의 세시에 적힌 종교적 묵상과 기도는 이러한 회귀가 1917년의 세시와 세말, 1918년의 세시에는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는 소설적 글쓰기 외에도 일기, 편지, 유서 등과 같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소설 문체에 대한 실험적 작업을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윤식은 ‘창조’ 동인들에 대한 연구에서 “고백체라는 제도적 장치(형식, 편지, 일기 등등)가 있었고, 그것이 고백할 내용(번민)을 만들어낸 것”<sup>52)</sup>이라는 가라타니 고진의 유명한 개념을 사용하며 편지, 일기, 유서와 같은 글쓰기 형식이 김동인의 『마음이 열린 자여』와 전영택의 『운명』에 사용된 것을 처음 주목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고백의 문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기, 편지, 유서 등은 글의 특성 상 정확한 시간의 기호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명기된 시간의 기호들은 적힌 내용과 함께 허구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을 묘사하고, 증언한다. 『생명의 봄』은

51) 염상섭, 『만세전』, 『만세전-염상섭 중편선』, 문학과지성사, 2005, 7쪽.

52) 김윤식, 앞의 책, 2000, 141쪽.

소설적 글쓰기로 진행되고 있지만 작가의 의도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는 날짜와 시간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고,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기에 그것이 가진 시대적 증언의 효과는 다른 소설과는 달리 명징하다고 할 수 있다. 일기나 편지, 유서 등에, 그리고 그것의 결합 또는 종합인 소설에, 솔직하게 담긴 인물의 변민이 다른 사람과 명확히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자이를 고백한다면, 그 내용(또는 내면)과 시간의 기호는 다시 한 번 단단하게 결합하며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과 사회의 경험을 고백한다. 1918년 인플루엔자를 고통스럽게 통과한 그들이 호명하는 것이 “저희를 빛과 사랑으로 인도” 할 “주님”(229쪽)이든, 아내와 아들의 무덤 뒤로 기우는 “허연 은빛 구름 틈으로 보이는 해”의 모습에서 찾은 “참 삶”(151쪽)이든, 죽음의 기운이 짙게 내려앉은 평양의 석양에서 현현한 “예술적 충동”(123쪽)이든, 거기에는 감염된 육체와 내면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다. 비록 그것이 망각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취급될지라도, 기록된 문자들은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그때의 비참을 읽은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인간에게 종교와 예술을 갈망하게 만든다는 프로이트의 통찰은 한국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공간과 그 과정을 사유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매일신보』, 『창조』
- 김동인, 『김동인 전집』 1권, 조선일보사, 1987.
- \_\_\_\_\_, 『김동인 전집』 16권, 조선일보사, 1988.
- 염상섭, 『만세전-염상섭 중편선』, 문학과지성사, 2005.
- 윤치호, 『윤치호 일기 1916~1943』, 김상태 편역, 역사비평사, 2001.
- \_\_\_\_\_, 『국역 윤치호 영문일기 6』, 박미경 역, 국사편찬위원회, 2015.
- 이광수, 『이광수전집』 17권, 삼중당, 1962.
- \_\_\_\_\_, 『무정』, 문학과지성사, 2005.
- 전영택, 『늘봄전영택전집』 3권, 표언복 엮음, 목원대출판부, 1994.
- \_\_\_\_\_, 『화수분』, 문학과지성사, 2008
- 최명익, 『비오는 길』, 문학과지성사, 2004.

### 2. 논문

- 김서형, 『전염병과 소수집단 배제의 담론 : 1918년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15권, 대구사학회, 2014.
- 김상태, 『일제하 윤치호의 내면세계 연구』, 『역사학보』 제165집, 역사학회, 2000.
- 김택중, 『1918년 독감과 조선총독부 방역정책』, 『인문논총』 제74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7.
- 김영민, 『「창조」와 3·1운동』, 『한국민족문화』 69호,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 백선례, 『1919·20년 식민지 조선의 콜레라 방역활동-방역당국과 조선인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제101호, 한국사학회, 2011.
- 서희원, 『1918년 인플루엔자의 대재앙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47,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 손정수, 『윤치호 초기 일기의 장르적 성격』, 『한국문화』 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이경훈, 『「창조」와 실연』, 『한국문학의 연구』 61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 이상원, 『우리나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예측 모델링 및 1918년 대유행에 대한 적용과 분석』, 충북대학교 의학박사논문, 2009.
- 이선경, 『윤치호의 문화횡단적 글쓰기: 초기 일기(1883~1895)에 나타나는 언어, 장르, 주체구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6, 비교문학회, 2012.
- 이정은, 『「매일신보」에 나타난 3·1 운동 직전의 사회상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 정용화, 『문명개화론의 뒷-「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1집 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 천명선·양일석, 『1918년 한국 내 인플루엔자 유행의 양상과 연구 현황 : 스코필드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의사학』 제16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7.

3. 단행본

김윤식, 『김동인 연구』, 민음사, 2000.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 소명출판, 2003.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윤영실,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아카데미, 2003.

로라 스피니, 『죽음의 청기사』, 전병근 역, 도서출판 유유, 2021.

마이크 데이비스, 『조류독감』, 정병선 역, 돌베개, 2008.

모리스 블랑쇼, 『도래할 책』, 심세광 역, 그린비출판사, 2011.

스즈키 토미, 『이야기된 자기 일본 근대성의 형성과 사소설담론』, 한일문학연구회 역, 생각의 나무, 2004.

앨프리드 W. 크로스비, 『인류 최대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김서형 역, 서해문집, 2010.

지그문트 프로이트, 『프로이트 전집 15: 문명 속의 불안』, 김석희 역, 열린책들, 1997.

지나 콜라타, 『독감』, 안정희 역, 사이언스북스, 2003.

## 1918 Influenza and Traces of Infection Left in Literature

Suh Hee-Won\*

In 1918 influenza was a pandemic of three times. The situation in colonial Joseon was no different. Most of the victims occurred during the second pandemic from September 1918 to January 1919. If you look at the records within the scope of literature, except for newspaper reports, the horrors of the second pandemic are mentioned importantly in Kim Dong-in's mid-length novels and Jeon Young-taek's short stories. Other than that, a brief situation is recorded in Yoon Chi-ho's diary. The third pandemic, which began in the fall of 1919, is detailed as the background of the relationship and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in Jeon Young-taek's novel. In other works, it is difficult to find references to the disaster that claimed the lives of the most Koreans among the events of the 20th century, except for the Korean W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traces of the 1918 influenza recorded in novels and diaries. Disease is both a matter of the body and an opportunity to shake the inside. And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ransmission between people called infections, it can be at least a matter of human relationships, or social structure and relationships.

**Key words:** 1918 influenza, pandemics, infectious diseases, infections, Kim Dong-in, Jeon Young-taek, Yoon Chi-ho, March 1st Movement, prison, confession, testimony

논문투고일 : 2021년 10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11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1월 20일

\* Dongguk University Dharma College